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1)

우연일 수 없는 사건 - 정보과학회의 탄생

과학문화연구원 한상준*

1973년은 여로 모로 우리나라 근대화에 있어 기억되어야 할 일이 많았던 해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이라는 위치에서 불과 20여년 뒤에 세계 주요 산업국의 하나로 등장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특히 정보문화가 21세기의 가장 뛰어난 특징이 될 것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때이었다. 이와 같은 1973년에 정보과학회가 창립됨으로써 20년후에 우리나라 국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조직이 생겨났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반도체의 설계 및 가공기술 습득과 개발이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1973년 당시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연구 범위가 산업기술 전반에 걸쳐 있었지만 미래 산업에서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었던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개발에 연구소의 중점이 놓이게 되었다. 그 당시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고 있었다. 어렴풋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있었으나 정부의 어떤 분은 도대체 반도체가 무엇이며 왜 하필 반도체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가 부평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으며 여기서는 주로 시제용 MOS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수출이 그리 높지 않은 때이었다.

한 번은 당시 금성사 사장이었던 박승찬씨가 박정희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칠 기회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박사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권유했었다고 한다. 이때 박사장은 어물어물하면서

명백한 답변을 못하자 대통령이 “겁쟁이군” 하셨다는 말을 박사장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 몇 년후 반도체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전자기술연구소가 경상북도 구미에 독립기관으로 설치 운영되게 되었다.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발상이냐고 걱정하는 과학자도 있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선진국들이 사주겠느냐는 걱정이었다.

한편 컴퓨터의 이용분야는 착실하게 발전되어 나갔으며 1970년에는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고 대형과제처리를 위해 멀티프로그래밍(Multiprogramming)이 가능한 CDC 3300 Master System을 도입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경제기획원 예산국에 전화선을 이용한 원격단말장치(Remote Batch Terminal)를 설치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시분할 원격처리(Time Sharing Remote Processing)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한편 한글화 입출력 방안 연구가 성공되어 한글 자동인쇄기가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대량정보처리가 가능한 광학문자 판독기(OCR)가 설치되면서부터 컴퓨터의 활용도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라인프린터를 이용해 서울시내 수도요금 청구서를 KIST의 전자계산실에서 인쇄하여 시내 각 가정에 송달하였던 것도 기억되는 일이다. 다만 인쇄된 글자 모양이 다소 어색했던 것은 우리 한글의 구조 때문에 오는 부득이 한 결과이었다.

경제기획원에는 처음으로 「예산처리 및 배정업무의 전산화」를 이룩하였고 「1970년도 대학 입학 예비고사 채점」 「종합체절 전설 PERT」 「전화요금 EDPS」 한국은행의 「수출지원 금융관리시스템 개발」 「관세행정의 EDPS화」 「전

*중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대 회장

대행정 EDPS」 등등의 과제가 수행되면서 컴퓨터의 활용이 촉진되었었다. 1972년에 이르러 Cyber 72-14로 기종을 교체하여 연구소내의 관리는 물론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의 EDPS화와 문교부의 각종 입학시험 관리업무, 체신부의 전화요금 관리업무, 우편저금업무, 증권거래소 업무의 EDPS화 등 시민생활에 직결된 공공업무에서 컴퓨터의 유용성이 증명되었다. Cyber-72를 핵으로 대량 처리용 단말장치 (Batch Terminal) 및 대화형 단말장치(Interactive Terminal)를 서울 시내뿐 아니라 부산, 광주, 울산 등지까지 연결하여 전국적인 대규모 전산망을 형성했었다. 말하자면 KIST가 당시의 정보산업 토착화에 앞장 선 격이었다.

KIST에서 CDC 3300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CDC 본사에서 필자를 초청한 일이 있었다. 본사가 있는 미네아포리스를 찾은 것은 가을이었으며 미네아포리스의 많은 호수와 큰 나무들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때 마침 CDC 회장이 워싱턴의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느라고 부재중이었으나 끝나는 데로 비행기로 돌아온다고 기다려 달라는 전갈이 있었다. 그 동안 나는 그곳 연구원의 안내를 받아 회사 내의 여러 시설과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안내를 받는 도중 CDC 회장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 연구원은 자기 회장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하였다. 그 까닭은 CDC를 창설하기전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로 있던 때에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큰 회사 회장으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옛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겸손한 사람이 존경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비슷한 이야기는 동경에서도 들은 일이 있었다. 일본의 정단련 회장이 옛날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야 하므로 자동차가 출입할 수가 없어 출퇴근시에는 자동차가 계단 아래에 와서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역시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장이 겸소하다는 이야기이다.

KIST가 컴퓨터 활용의 개척과 반도체 개발을 통한 미니컴퓨터의 제작에 성공하였던 것도 기억에 새롭다. 이때 국내 여거지기에서 고군

분투하던 유관학자와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1973년 3월 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정보과학회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이 창립총회에서 KIST의 참여가 학회 활동에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KIST 책임자를 초대회장으로 선정하기로 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 당시 기꺼이 책임을 맡기로 하였으며 특히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 것은 각계에서 뽑혀나온 의욕적인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이다. 나는 그저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수고하신 분들 가운데 부회장직을 기꺼이 맡아 수고하신 서남원 박사를 위시하여 이우한 교수와 김용만 이사, 이 세분을 잊을 수가 없다. 특히 서남원 교수는 나 대신 학회 육성에 힘을 다해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며 초창기 학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제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정보과학회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자못 기대되는 바 크다 아니할 수가 없다. 동양 삼국 가운데 오로지 한글만이 라인 프린터에 의해 인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조상의 예지에 새삼 머리가 숙여지며 이같은 우리의 입장을 기초로 하여 정보 문화의 꽃이 피어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73년 3월의 창립총회 후 동년 12월 14일에 다시 총회를 KORSTIC 강단에서 가졌었다. 정보과학이 워낙 범위가 넓어서 회원들의 전공이나 관심분야도 다양하여 학계는 물론 행정기관, 회사, 군관계 분들이 망라되어 서로 잘 모르는 처지였기 때문에 학회모임은 단순한 학술 발표의 장을 넘어 회원 상호간의 친숙과 교류를 위해서도 만 학회와 다른 의의를 지녔었다. 학회의 또 다른 면의 중요성을 입증한 자리가 되었다.

회원의 다양한 배경 때문에 초창기 학회운영에서 집행부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집행부의 토의나 의사 결정에 있어 모두가 매우 협조적이었다는 점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학회 재정문제 있어서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신통치 않아 집행책임자로서 지금도 부끄러울 따름이다. 더욱이 그 당시 정보라고 하면 그 개념이 모호하여 설득하는데도 수고했어야 했다. 재정담당 김 부회장의 수고에 새삼 경의

를 표한다.

회원수나 업적에 있어 우리나라 학회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정보과학회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화목한 가운데 학술개발에 전력하면서 잡음이 별로 없

은 우리나라 정보과학자들의 우수성을 반증하는 것이며 학회 장래를 낙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크게 응비하는 학회가 될 것을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않는다.

● 1997년 통계 데이터베이스 학술대회 ●

- 일 자 : 1997년 2월 13~14일
- 장 소 : 충청남도 도고
- 주 최 : 데이터베이스연구회
- 문 의 처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차상균 교수
T. 02-887-0396